

2004년 변리사 1차시험 1,053명 합격

1,022명이 이공계 출신

특

허청은 금년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를 2차 최소 합격인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1,053명(동점자 71명 포함)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1차 합격자 선정기준은 매 과목 과목없이(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 한 자중에서, 2차시험 최소합격 인원(200명)의 5배수인 1,000명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 동점자를 합격시킨 것이다. 합격 커트라인은 총점 257.5점, 평균 64.38점이었다. 1차 합격자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성합격자는 231명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고(03년 243명, 24%), 연령별로는 24~31세가 692명으로 다수(66%)를 이루

었다. 1차시험 합격자 1,053명중 97%에 해당하는 1,022명이 이공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변리사 시험이 대표적인 이공계시험임이 재차 확인되었 다. 2003년 1차시험 합격자중 953명(94.0%), 2차시험 합격자중 197명(97%)이 이공계 출신이었다.

올해 시행되는 2차시험의 경우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

관 및 경영관에서 8.11(수) ~ 8. 12(목) 2일간 시행되며, 2차시험 총 응시대상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중 금년에 면제자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1,005명을 합하여 총 2,058명으로, 2차시험 최소 합격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2차시험 최종경쟁률은 약 10 : 1 이었다.

합격 커트라인

총점 257.5점, 평균 64.38점

생체인증 기술 특허 출원 동향

**출원건수 이전에 비해 300% 이상 증가,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약 90%**

최

근 잣아지고 있는 불법적인 금융거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은행들이 지문정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9.11 테러 이후 자

국내 보안에 민감해진 미국이 2004년 10월 생체인식 여권 및 비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국내외에서 생체인식을 이용한 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출원된 생체 인증 관련 출원동향은 2000년부터 출원건수가 그 이전에 비해 300% 이상 증가되었으며 내국인에 의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마법사, 잉크젯 응용 기술

재료 낭비나 환경오염 없어...

통상 “잉크젯 기술”은 색소를 넣은 잉크를 종이 등에 분사시켜 글씨나 그림을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잉크 대신 다른 물질을 분사하는 기술로 발전되어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잉크젯 응용 기술의 적용이 가장 활성화 될 분야 중 하나가 반도체 제조분야이다.

기존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인 “리소그래피 (Lithography)” 공정은 서로 다른 회로 모양을 총 층이 쌓아가며 원하는 구조의 다층 회로를 만드는 공정으로서, 금과 같은 고가의 재료를 웨이퍼에도 포한 후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유독 화학물질로 제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재료의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했으나 앞으로 이 분야에 잉크젯 기술을 적용시키면 재료 낭비나 환경오염 없이 정밀하고 신속하게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잉크젯 기술을 응용한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 등은 선진국에서도 이제 막 개발 단계에 있고 그 응용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이 기술 분야를 메모리 산업에 이어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잉크젯 기술은 미국의 HP나 엡슨, 일본의 캐논 등 선발업체들이 특허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끼리만 크로스라이센싱을 통해 후발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서, 특히 “잉크젯 헤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타업체에 라이센스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잉크젯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잉크젯 헤드에 관한 국내특허 출원은 1988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1천여건이 출원되고 있다. 특히 美·日 기업들에 의한 출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업체의 출원은 전체의 10% 정도로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국내업체들이 이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외국 특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특허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출원이 약 90%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2000년에는 60% 이상의 출원이 지문을 이용한 인증 기술에 치중해 있는 것에 비해 2001년 이후로는 홍채 및 얼굴 인식을 이용한 인증 시스템에 관한 출원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 생체 인증 사업은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두 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5년

도 시장규모는 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약 50여개 업체가 생체 인식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의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외 생체 인증 시스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반기술 확보와 국제 표준화 재정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공 특허청